

본회, 임원·지부장 연수회 성황리 개최

-4. 7~8일, 충남 아산 도고에서

-홍보부-



본회 임원·지부장 연수교육이 지난 4월 7일과 8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도고호텔에서 실시됐다.

임원·지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효율적인 지부운영 요령을 습득하고, 회원간 화합도모, 국제화 시대에 따른 우리의 자세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은 교양강좌, 종합토의, 부서별 교육, 레크레이션, 효과적인 자돈관리,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입소식에 앞서 농림수산부 김정용 차관보는 참석자들에게 UR 농산물협상 결과와 이행계획

서 수정 제출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특히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프로의식을 가진 양돈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며, 시설자동화와 규모화,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전업화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강, 종합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이어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UR



협상결과에 따른 수입개방은 공식적으로는 내년 부터이나 금년에도 정부가 불가안정용으로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만큼, 실제 수입개방은 올해부터"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우리 양돈은 이제 식품이 부는 광야에 홀로 서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개방을 맞이해 올해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화, 분뇨처리 시설자금 보조, 융자금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협회의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양돈업계가 개방시대에서 생존하고, 또 협회가 추진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돈업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돈업계는 양돈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성 한국 탐 컨설팅 소장은 「환경변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이은성 소장은 강의에서 대우경제연구소가 실시

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연구보고서를 인용, "수입쿼타는 축협으로 수입창구를 일원화 하고 판매 차입금은 축발기금에 납입하여 양돈업 경쟁력 개선사업에 적극 지원해야만 양돈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 확보 여부는 향후 3년간 양돈업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양돈산업도 종래의 고전적 방법이나 모방을 통한 신제품 도입을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양질의 신제품 개발 및 도입에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며, "앞으로의 양돈인의 자세는 현장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공정혁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 종업원의 경험이나 전국현장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참여의식을 촉진시켜 전체가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양강좌후 있는 신임지부장들의 자기 소개에서는 음성, 제천, 서남, 대전, 양산, 청도, 마산, 울산지부장 등 8명의 신임지부장들이 앞으로의 지

부운영 방안과 각오를 밝혔으며, 특히 박위출 청도지부장은 “우리나라의 양돈은 타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이며,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계속된 종합토의는 노영한 전무의 사회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노동환 나주지부장의 농·수·축협이 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양돈관련단체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노영한 전무는 “세계의 양돈단체는 협회중심(미국)과 조합중심(덴마크 등), 조합·협회·기업 등 복합적 구조(일본) 등이 있으나,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단체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규제 완화,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최근 유사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회원의 권익을 생각하면 협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환 울산지부장은 직판장과 수출단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영농조합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게 검토한 후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둘째, 울산지부가 돈육수출을 진주함과 함께 처음 시작하였으나 3년전부터는 대성식품과 계약하여 지금까지 수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출단지를 조성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수출창구가 없으며, 영농단지 조성의 우선순위로 사료통일과 전산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속있는 강의, 양돈인 화합의 시간 마련

저녁식사를 마친 임원·지부장들은 부서별 교육을 받았다. 부서별 교육에서는 우선 김찬채 이사가 「효율적인 지부운영」이란 주제로 7년간 지부를 맡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지부장들이 앞으로 지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김찬채 이사는 “협회의 생명력은 단결에 있으며, 협회의 힘의 원천은 지부에 있고, 지부의 힘과 비례한다”고 전제하고 “지부장은 열과 성의,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통솔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격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권태익 총무과장, 김동성 홍보부장, 제1, 2검정소장, 정호풍 지도부장의 순으로 부서별 교육이 진행되었다.

부서별교육을 마친 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첫째날 교육을 모두 마쳤다.

다음날 9시부터 시작된 둘째날 교육은 미국 North Carolina주립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있는 Jeffrey Hansen 박사가 「효과적인 자돈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Jeffrey 박사는 양돈영양을 전공하였으며, 이날 통역은 미사료곡물협회 민병렬 전무가 맡았다.

Jeffrey 박사는 한국의 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우선 돼지고기의 살코기 일당 증체량이 많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그 이유로 사육기간이 단축되고, 전체 고정비가 낮아지며, 올인-올아웃 운영으로 질병의 감염이 적고 일관된 사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수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실시된 자유토론 시간에는 지부별 성공사례발표 및 김찬채 이사가 「잔반을 처리하여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일간의 임원·지부장 연수교육을 끝내며 폐회식과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참석자들은 양돈인의 숙원사업인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자조금제도의 입법화 등 양돈업계의 현안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힘과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고, 양돈협회가 양돈산업의 구심체로서 양돈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박동래 부천지부장과 축산신문사 윤봉중 사장이 격려금을 전달하였고, 축산신문 전상록 충남지사장과 (주)삼조(대표: 계기수)가 협찬하였다. **■**